MARKET INSIGHT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8.7

미 증시,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를 소화하며 보합권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비농업 고용자수의 증가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 했지만, 고용보고서 결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폭은 제한. 대체로 시장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급등 등 고용보고서 결과를 소화한 가운데 개별 이슈가 부각된 테슬라(-6.63%) 등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했지만 금융,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23%, 나스닥 -0.50%, S&P500 -0.16%, 러셀2000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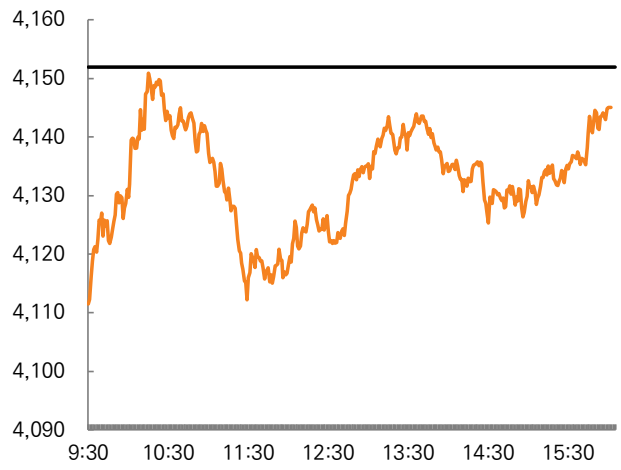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6.63%)는 머스크가 2030년에는 연간 200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12곳의 추가 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하락. 독일 공장이 50~70억 달러 규모의 건설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2개의 공장을 위해서는 600~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사이버트럭 출시 일정 연기도 부담. 한편,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기소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보합, MSCI 신흥 지수 ETF는 0.1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5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8%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예상을 상회한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음에도 혼조세로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이 우호적.
- 그렇지만, 달러화의 강세가 재차 확대된 점은 부담. 더불어, 테슬라와 니오 등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업종이 하락해 최근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부각된 점, 웨스턴 디지털 실적 부진 등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1% 하락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 후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90.80	+0.72	상해종합	3,227.03	+1.19
KOSDAQ	831.64	+0.79	홍콩항셍	20,201.94	+0.14
DOW	32,803.47	+0.23	베트남	1,252.74	-0.11
NASDAQ	12,657.55	-0.50	유로스톡스 50	3,725.39	-0.78
S&P 500	4,145.19	-0.16	영국	7,439.74	-0.11
캐나다	19,620.13	+0.22	독일	13,573.93	-0.65
일본	28,175.87	+0.87	프랑스	6,472.35	-0.6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고용보고서 해석: 경기 침체 우려 완화 Vs. 공격적인 긴축 부각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52.8만 건으로 발표돼 지난달 발표된 39.8만 건은 물론 예상치인 25만 건을 크게 상회. 지난 5월 수치도 38.4만 건에서 38.6만 건으로, 6월 수치도 37.2만 건에서 39.8만 건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고용자수가 개선. 실업률도 3.6%에서 3.5% 개선돼 펜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 시간당 임금 또한 전월 대비 0.5% 증가해 고용 시장 개선이 뚜렷

시장은 이러한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 속 달러화 강세, 국채 금리 급등을 보였고, 주가 지수는 매물 출회되며 하락. 실제 CME는 FedWatch를 통해 9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 확률을 34%에서 68%로 상향 조정하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임.

특히 시장이 주목했던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7%, 전년 대비 5.22% 상승해 이러한 연준의 정책의 당위성을 높임. 그렇지만, 개인서비스 부문이 전년 대비 5.19%에서 5.36%로 상향 조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전년대비 4.19%에서 3.89%로, 그동안 임금 상승을 주도했던 레저 및 접객업이 9.15%에서 8.71%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약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비농업 고용자수가 52.8만 건을 기록했는데 개인서비스 부문이 40.2만 건을 기록해 이를 주도.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이 10.9만 건에서 12.2만 건으로 증가했고, 레저 및 접객업이 7.4만 건에서 9.6만 건, 건설 부문이 1.6만 건에서 3.2만 건으로 증가. 그러나 IT가 2.4만 건에서 1.3만 건 증가로 증가폭이 감소한 가운데 소매업 등도 증가폭이 지난달 대비 둔화.

이러한 수치를 감안하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으나, 시장이 우려하듯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부진 Vs. 금융, 에너지 업종 강세

테슬라(-6.63%)는 머스크가 2030년에는 연간 200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12곳의 추가 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하락. 독일 공장이 50~70억 달러 규모의 건설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2개의 공장을 위해서는 600~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 연기도 부담. 한편,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기소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16.53%)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 넷플릭스(-1.36%), 디즈니(-1.38%), 아마존(-1.24%) 등도 동반 하락.

알리바바(-5.00%)는 1만명의 인력 감축 발표하며 성장의 역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로 급락. 웨스턴 디지털(-5.65%)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수요 부진을 이유로 약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마이크론(-3.69%), 엔비디아(-1.18%), AMD(-1.54%)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동반 하락. 반면, EOG리소스(+7.20%)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자본 지출을 유지한 가운데 올해와 내년에 생산량을 4% 증가할 계획을 발표하자 급등. 코노코필립스(+3.30%), 옥시덴탈(+2.70%) 등 여타 에너지 업종도 동반 상승. 승용차 공유업체인 리프트(+16.62%)는 견고한 실적과 활성 라이더 15.9% 증가 소식 등에 힘입어 급등. JP모건(+3.03%), BOA(+1.68%) 등 금융주는 고용보고서의 견고함과 이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에 힘입어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07	대형 가치주 ETF (IVE)	+0.15
에너지섹터 ETF (OIH)	+2.56	중형 가치주 ETF (IWS)	+0.28
소매업체 ETF (XLY)	-1.71	소형 가치주 ETF (IWN)	+0.58
온라인소매 ETF (EBIZ)	+0.21	대형 성장주 ETF (VUG)	-0.53
금융섹터 ETF (XLF)	+0.72	중형 성장주 ETF (IWP)	+0.70
기술섹터 ETF (XLK)	-0.23	소형 성장주 ETF (IWO)	+1.0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61	배당주 ETF (DVY)	-0.01
클라우드 ETF (CLOU)	-0.1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80
미국 리츠 ETF (VNQ)	+0.28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39
주택건설업체 ETF (XHB)	+0.31	미국 국채 ETF (IEF)	-1.45
바이오섹터 ETF (IBB)	+0.97	하이일드 ETF (JNK)	-0.41
헬스케어 ETF (XLV)	-0.04	물가연동채 ETF (TIP)	-1.01
곡물 ETF (DBA)	-0.4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35
반도체 ETF (SMH)	-0.68	모멘텀 ETF (MTUM)	+0.3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557.88	+2.04	-6.82	+3.15
금융	559.73	+0.78	-0.06	+4.89
소재	484.99	+0.36	-1.29	+5.58
부동산	273.75	+0.32	-1.35	+6.10
산업재	812.82	+0.21	+0.56	+9.32
헬스케어	1,531.03	-0.03	-0.70	+0.43
필수소비재	774.28	-0.15	+0.10	+2.25
IT	2,571.77	-0.24	+1.95	+10.63
유틸리티	377.08	-0.30	+0.38	+6.28
통신	194.79	-0.88	+1.16	-0.87
경기소비재	1,296.45	-1.66	+1.17	+12.8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2차전지, 반도체 업종 매물 소화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보합, MSCI 신흥 지수 ETF는 0.1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5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8%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달러 강세 기조가 완화되자 외국인이 7 거래일 연속 순매수 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진행되며 상승. 비록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는 등 증시 주변 여건도 긍정적인 영향. 더 나아가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심리도 우호적인 영향. 이에 힘입어 KOSPI는 0.72%, KOSDAQ은 0.79%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음에도 혼조세로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비록 긴축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이 우호적. 여기에 미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 했으나,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가 0.81% 강세를 보인 점, 다우 운송지수도 0.84%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지수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그렇지만, 고용보고서 발표 후 달러화의 강세가 재차 확대된 점은 부담. 더불어, 테슬라와 니오 등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업종이 하락해 최근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부각된 점, 웨스턴 디지털 실적 부진 등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1% 하락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 후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52.8만 건으로 지난달 발표된 39.8만 건이나 예상치인 25만 건을 크게 상회. 실업률도 3.6%에서 3.5%로 개선.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발표(mom +0.4%)를 상회한 전월 대비 0.5%로 발표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채 금리, 고용보고서 발표와 보우만 발언으로 급등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불구하고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속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더 나아가 독일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유럽의 경기도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 다만, 미국 가솔린 수요가 전년 대비 9%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폭은 제한

달러화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엔화가 달러 대비 1.3%, 스위스 프랑도 1% 가까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독일의 산업생산이 개선된 결과를 내놓는 등 생각보다 유로존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0.4% 약세에 그침.

국채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실업률도 3.5%를 기록해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상승. 특히 미쉘 보우만 연준 이사가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주장한 점도 상승 확대 요인. 한편, 고용보고서 발표 후 CME는 FEDWatch를 통해 9월 FOMC에서 75bp 인상 확률을 34%에서 6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대를 높인 점도 금리 급등 요인

금은 달러 강세 및 고용지표 개선 영향으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곡물은 대두가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작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 한편, 프랑스의 밀 수확량이 상향 조정되자 밀은 하락 했으나, 옥수수 수확량은 하향 조정하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95%, 철근은 2.56%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9.01	+0.53	-9.74	Dollar Index	106.621	+0.88	+0.68
브렌트유	94.92	+0.85	-8.70	EUR/USD	1.0183	-0.61	-0.36
천연가스	8.06	-0.71	-2.01	USD/JPY	135.01	+1.60	+1.31
금	1,791.20	-0.87	+0.53	GBP/USD	1.2073	-0.72	-0.81
은	19.84	-1.39	-1.76	USD/CHF	0.9615	+0.64	+0.96
알루미늄	2,416.00	+0.54	-2.91	AUD/USD	0.6911	-0.86	-1.06
전기동	7,870.50	+1.85	-0.59	USD/CAD	1.2932	+0.52	+1.07
아연	3,488.50	+1.10	+5.44	USD/RUB	61.0135	-1.23	-1.97
옥수수	610.00	+0.62	-1.61	USD/BRL	5.1639	-0.95	-0.18
밀	775.75	-0.86	-3.96	USD/CNH	6.7659	+0.22	+0.24
대두	1,408.75	-0.63	-4.07	USD/KRW	1,298.30	-0.90	-0.06
커피	209.45	-4.49	-3.57	USD/KRW NDF1M	1,303.58	+0.08	+0.0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27	+13.85	+17.81	스페인	2.033	+13.20	+11.70
한국	3.115	-4.00	-1.00	포르투칼	1.945	+12.10	+10.20
일본	0.168	-1.00	-1.70	그리스	3.063	+9.60	+10.40
독일	0.955	+15.20	+13.80	이탈리아	2.673	+8.70	-20.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